

밤새 소리없이 내린 눈은 온 강산을 은빛으로 단장하였다.

나무가지마다 수북이 내린 눈은 마치도 온 강산이 숨이불을 덮은것처럼 포근하고 따뜻한감을 안겨주었다.

새해의 출근길에서 가슴벅찰 한해의 일감들을 안아보며 교정으로 바쁜 걸음을 옮기던 나는 문득 나를 찾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귀익은 목소리였다.

《아니? 이게 누구야? 명진이가 아니야?》

학교를 졸업한지 10년 가까이 언제나 방학이나 휴가차로 와서는 꼭꼭 학교에나 집에 들러 그간 있었던 대학시절과 연구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던 남달리 쾌활한 어제날의 제자였다.

그사이 연구사업이 바쁘다며 명절날이나 기념일 때면 꼭꼭 잊지 않고 손전화통보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오던 다정다감하던 제자의 모습에 나는 어린애마냥 명진의 손을 잡고 막 흔들어들었다.

《2년째나 못 보았구나. 정말이지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몰라.》

《저도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그리웠습니다.》

나는 어쩐지 더욱 숙성해보이고 리지적으로 번쩍이는 눈동자에 마음이 끌려 바쁜 출근길도 감감 잊고 이야기에 정신이 팔렸다.

《선생님, 바쁜 출근길인데... 제 지금 여기 화학공장에 출장오는 길입니다. 지금 막 도착하건칩니다. 선생님을 먼저 뵙고싶어서 이렇게...》

《저녁에 집에 오라구. 그 기간 회포도 나누고...》

나는 반가움에 앞서 그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다.

《저 선생님, 전 인츰 떠나야 합니다. 화학공장에 들러 실험자료를 받은 다음 또 함흥으로...》

오랜만에 길가에서 옛 선생을 만나 짧은 동안 회포를 나누고 또다시 출장길을 이어가야 하는 미안한 생각때문인지 그는 멋지게 발끝을 내리다보았다.

《중요한 연구과제를 맡은 모양이지?》

《예. 새해과제가 나와서...》

나는 그의 손을 꼭 감싸쥐었다.

26살! 아직은 젊은 나이이다. 배움의 시절이 완성되었다고는 말할수 없는 그 나이에 그는 첨단돌파의 앞장에 서있다.

벌써 석사학위를 받았고 화학공업분야의 중요한 과제를 여러건 완성하여 두각을 나타낸 수재형의 연구사, 미더운 제자!

머리흰 로화학자들과 어깨를 겨루고 한껏 푸름을 자랑하며 행복을 향유할 시절에 그는 어려운 과학탐구의 길을 웃으며 바쁘게 걷고있다.

《명진동무! 이번에도 꼭 성공해! 명진의의 성공소식 이 선생이 기다린다는걸 잊지 말고 줄달음쳐 달리라구.》

나는 그를 꼭 그러안았다.

대학으로 떠나보내던 그때 그는 얼마나 평범하고 어렸던가.

그를 우리 조국이 키웠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그 당부가 어려울 때마다 저를 떠미는 힘이 되군 했습니다. 절 믿어주시시오.》 별로 의젓해보이는 모습이였다.

목소리도 더 굵직해보였고 나의 손을 꼭 잡은 그 손도 더 크게 느껴졌다.

《집에도 들리지 못하고... 어머니가 섭섭해하지 않게 잠깐만이라도 들리지.》

섭섭해할 명진이 어머니의 머리흰 모습이 떠올라 하나마나한 소리를 건네었다.

《우리 어머니 리해합니다. 공장정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숫눈길을 걸으며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다.

상봉의 시간은 짧았다. 하지만 나는 그 시간에 며칠 아니, 몇달에도 못다할 이야기를 그와 나누었다.

나는 미더운 눈길로 명진이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그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나는 믿고싶었다.

그렇다. 나에게서는 이런 제자들이 많다. 20대의 쟁쟁한 제자들이,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힘찬 호소를 심장에 받아안고 시대의 앞장에서 달려가는 첨단돌파전의 기수들이 많다. 푸른 시절을 한껏 조국을 위해 바쳐가는 청춘들! 나는 자랑하고싶다.

그 푸르름의 시절을 향락과 도락으로가 아니라 어머니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런 청춘들이 있어 우리 조국은 언제나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것이다.

이런 청년들은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만 있는 시대의 꽃, 사회주의강국건설대오의 나팔수들이다.

나는 뿌듯이 부풀어오르는 긍지를 안고 손전화기를 꺼내들었다.

첨단돌파전에 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고무와 격려, 당부를 담은 새해통보문을 정히 써서 보냈다.

정말 기쁘고 상쾌한 아침이었다. 마음껏 푸른 시절을 바쳐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 둘 눈앞에 안겨왔다.